

## 챔피언 AJ KOREA TEAM 등극

### 필리핀 공동체 2007 농구리그 폐막식

필리핀 근로자 공동체가 포천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2007농구리그 결승전과 폐막식이 9월16일 오후4시 포천종합체육관에서 300여명의 필리핀 근로자들과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결승전은 AJ KOREA 팀과 동두천팀이 만나 승부를 가려 AJ KOREA 팀이 크게 이겨 챔피언이 되었다.

이날 시상식은 300만원을 행사지원금으로 기탁한 전방진 세이프건설 회장이 참석해 챔피언을 시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전 리그에서는 모두 13개 팀이 참가했으며 3개월 동안 계속됐으며 팀은 필리핀에서 온 근로자들의 출신지역별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상식을 마친 전방진 세이프건설 회장은 "낮선 땅에서 살아가면서 스포츠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한국에서 사는 동안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근로자 공동체가 포천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2007농구리그 결승전과 폐막식이 9월16일 오후4시 포천종합체육관에서 300여명의 필리핀 근로자들과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신문 記事 보고 먼저 홍보 나선다”

####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제19차 정기회의 개최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단장 박혜자)은 9월19일 오전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0월2일 고적담사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포천신문 최두열 전무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찌는듯한 무더위가 계절의 추이 앞에 사라지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 반갑다”며 “각자 맡은 바 일에 충실하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혜자 단장은 “오늘 처음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는데 하나하나 일을 처리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넘치는 것은 받도록 하고 싶다”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사회봉사에도 참여하기 위해 단복을 제작해 기증했으니 사회봉사 때마다 착용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요 회의안건은 정관수정의 건, 홈페이지 활용방안의 건, 독자배가 운동의 건, 기사제보 및 기사작성의 건, 각 지부 활성화 방안의 건 등을 처리했다.

독자배가운동에 대해 박혜자 단장은 “내가 먼저 신문을 읽고 그 내용을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포천신문을 구독할 것을 권유하는 방안으로 배가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0월2일 서해안으로 고적담사를 떠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은 9월19일 오전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 포천신문 창간 기념식 12월15일 실시

####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임원회의 의결

지난 14일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이용)는 송우리 청정식당에서 임원회의를 갖고 12월15일 포천신문 창간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참석한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임원들은 올 창간 기념식은 외부 인사를 초청하고 포천신문사 5개 단체 가족들이 참여하는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포천신문 조사위원회는 지난 6일 송우리 청정식당에서 임원회의를 가졌다.

또한 포천신문사 5개 단체 위원들이 벌이고 있는 포천신문 구독배가 운동 결과에 따라 1년간 통계를 집계해 가장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위원을 선정해 공로패를 증정하기로 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정기회의

포천신문 조사위원회(위원장 이상일)는 지난 13일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제25차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8월에 실시한 하계워크샵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이상일 위원장이 8월 한달 동안 있었던 단위 위원들의 동정을 발표했다.



포천신문 조사위원회는 지난 13일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제25차 정기회의를 가졌다.

또한 위원들은 낚시꾼들이 각종 쓰레기를 포천천에 투기함으로써 오염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천정화 차원에서 조사위원들이 쓰레기수거 봉사활동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일 조사위원장은 “가을인데도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추석을 앞두고 풍성한 수확이 기대된다”면서 “8월에 실시한 워크샵에 협조해 준 분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②6 검은머리개오라기[green-backed heron]

## “댕기머리 훔날리며 물 속을 주시”

장마가 끝났다는 기상청의 예보에도 불구하고 몇 일째 폭우로 포천 들녘을 적시고 있더니 오늘은 빗방울도 잠시 멈추었고 먹구름만 끼어 있습니다.

새들에게는 이런 날씨가 그동안 먹이사냥을 제대로 하지못해 약해진 체력을 보충 하기에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할 수 있지요.

포천천의 새들도 이런 날씨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저 또한 이들의 만남을 미룰 이유가 없었지요.

작년에 검은머리개오라기를 촬영하였던 기억을 되살려 포천천 지류에 도착하여 장비를 세팅하고 촬영지 주변을 정리한 다음 워킹텐트를 설치하고 촬영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난밤에 내린 폭우로 수위가 너무 올라가 있어 물새들이 사냥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서 그런지 적막감만 감돌뿐 물새들은 자취를 감추고 있더니 약 한시간 정도 지나자 검은머리개오라기 한 마리가 날아와 지정석에 앉더니 본격적인 사냥 준비에 들어가더군요.

수중보 아래에 있는 둔덕에 올라서 댕기머리 훔날리며 물 속을 주시하며 사냥 기회를 엿보고 있는 포천천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검은머리개오라기는 자라목을 쭈욱 빼듯이 사냥감을 향해 온몸을 던져 물고기 사냥에 성공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검은머리개오라기는 백로과 조류로 전국적으로 번식하는 여름철새입니다.

다른 백로류나 해오라기 처럼 집단 서식지에서 번식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숲가에 동지를 틀고 번식을 합니다.

겨울에는 필리핀 등 동남아 등지에서 월동을 한 후 봄이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번식을 하는 전형적인 여름철새입니다.

검은머리개오라기는 다리가 짧고 물갈퀴가 없어 사냥을 할 때에는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한 곳에서 기다렸다가 물고기가 나타나면 사냥하는데, 이때 다리는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움켜쥐고 몸 속에 숨겨 두었던 길다란 목을 쭈 빼서 먹이를 사냥하게 됩니다.

나뭇잎이나 곤충, 잡았던 작은 물고기까지 물위에 미끼로 던져 놓고 물고기가 다가오면 사냥할 줄도 아는 지혜가 있는 새입니다.



2007. 8. 6 포천시 가산천에서 촬영

금만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면 포천천에서도 사냥하는 검은머리개오라기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에도 관찰되었던 개체수 보다 다소 많은 개체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포천천의 수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포천천 지류에서 더 많은 개체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포천신문 조사위원장 이상일 017-705-0994



## 풍성한 한가위 명절에 (주)꽃샘종합식품 선물세트로 보은하세요

**토종꿀고기구 2호**  
토종꿀 600g × 2EA

**고려홍삼혼합꿀세트**  
홍삼혼합꿀 1,000g

**특선봉밀 1호**  
잡화꿀 2,200g

**토종꿀고기구 1호, 3호**  
토종꿀 2,400g / 200g

**전 5호**  
꿀 1,000g / 꿀 1,000g

**전 11호**  
꿀 1,000g / 꿀 1,000g

**3호**  
잡화꿀 1,200g / 꿀 1,200g

**전 10호**  
꿀 600g / 꿀 600g

**(주)꽃샘종합식품**  
KKOH SHAEM GENERAL FOOD CO., LTD.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240번지  
소비자상담실 080-541-9920  
http://www.ksfs.co.kr